

# 패션 문화의 의미 구성과 도시 서사

## : 프랑스 리옹(Lyon)과 영국 맨체스터(Manchester)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 비교 연구

전 형 연

(국립목포대학교 부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텍스타일 문화가 도시의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과 영국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즉, 박물관 전시를 단순한 산업사 재현이 아니라 특정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조직하는 '의미 생성 장치'로 보고, 전시의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공간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텍스타일 유산의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두 도시는 동일한 텍스타일 산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리옹은 가늌 장인, 직조 기술, 작업장-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텍스타일을 장인 전통과 도시 정체성을 구현하는 문화유산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 전시는 실제 작동하는 직기, 체험 프로그램, 분산된 작업장 사이의 이동 경험을 통해 텍스타일을 수행되고 전승되는 유산으로 구성하였다. 반면 맨체스터는 노동자, 기계, 면화, 세계적 무역망을 중심으로 텍스타일을 산업혁명과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서사화하는 동시에, 식민주의와 노동 착취의 역사와 결합된 비판적 산업유산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리옹이 '살았던 공간'을 기반으로 유산을 제시한다면, 맨체스터는 산업 시스템을 재현한 전시 공간을 통해 텍스타일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타일 유산의 의미화가 역사적 사실 자체보다 행위자 구성, 서사 조직, 공간 형식, 물질적 조건, 전승 주체의 배열에 의해 구조적으로 형성됨을 밝혔다. 나아가 동일한 산업유산이라도 도시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기억되고 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 텍스타일 박물관, 도시 정체성, 기호학, 전시 분석, 리옹, 맨체스터, 산업유산, 살아있는 유산

## 1. 서론

최근 도시와 지역은 문화적 상징을 활용하여 고유한 정체성과 매력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패션과 의복 문화는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 도시 이미지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여러 도시들이 패션 산업과 디자인 문화, 패션 이벤트 등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는 오랫동안 “패션 수도(fashion capital)”라는 이미지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패션 산업과 문화는 도시의 문화적 상징과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요소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서사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작동한다(Steele, 2019). 또한 최근 도시브랜딩 연구에서도 패션 산업과 패션 이미지는 도시의 경쟁력과 문화적 매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고 있다(Capone & Lazzeretti, 2016).

이와 같은 흐름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패션과 의복문화를 지역 브랜드 전략과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 일대는 패션 산업과 디자인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도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Ryu, 2011), 전주에서는 한복을 지역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문화 행사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한복 문화 주간(Hanbok Culture Week)’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 의복 문화를 지역 문화 관광과 결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 의복을 도시의 문화 정체성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연합뉴스, 2025.10.16). 또한 전주 한옥마을의 사례는 지방정부의 문화 마케팅 전략이 지역 문화 자산을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키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Lee, 2012). 이러한 흐름은 의복문화가 단순한 생활문화가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문화적 상징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시브랜딩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상징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Kavartzis(2004)는 도시 브랜드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식 등 다양한 상징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Lucarelli와 Berg(2011)는 도시 브랜드 형성 과정에서 문화 산업과 문화적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패션과 의복은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중요한 상징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패션 사회학 연구에서도 의복은 개인의 미적 표현을 넘어 사회적 의미와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상징적 체계로 설명된다(Entwistle, 2000; Kawamura, 2005).

그러나 ‘패션 문화’가 도시의 역사와 문화 서사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되고 재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연구 역시 패션박물관의 기능이나 전시 유형, 운영 전략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패션 문화가 특정 도시의 역사와 산업 전통 속에서 어떠한 문화 서사(cultural narrative)로 구성되는지를 도시 간 비교 관점에서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실제로, 기존 박물관 연구는 전시 디자인, 관람 경험, 전시 스토리텔링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텍스타일 유산이 특정 도시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어떠한 문화 서사로 재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화 과정이 도시 간 비교 속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 문화를 구성하는 물질적·산업적 기반으로서 텍스타일 문화에 주목한다. 여기서 패션 문화는 의복 디자인뿐 아니라 직물 생산과 텍스타일 산업, 패션 소재와 관련된 문화적 실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특히, 텍스타일 산업과 직물 문화가 특정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과 결합하여 어떠한 의미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박물관 전시를 통해 어떤 서사 구조로 재현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텍스타일 문화는 흥미로운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통해 면직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텍스타일 문화가 산업 생산과 연결되어 왔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실크 산업과 패션 문화가 결합하면서 텍스타일 문화가 장인적 예술과 깊이 연결되어 왔다. 이러한 차이는 텍스타일 문화가 각 도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되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특히 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적 의미가 사회적으로 재구성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선택하고 배열함으로써 하나의 문화 서사를 구성하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Bennett, 1995; Hooper-Greenhill, 2000). 즉, 박물관 전시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행위자, 서사, 그리고 공간이 결합된 ‘의미 생성 장치’로 이해될 수 있으며(Fontanille, 2008), 텍스타일 문화는 이러한 전시 맥락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리옹과 영국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두 도시의 텍스타일 문화가 박물관 전시라는 의미 생성 구조 속에서 어떠한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구성 방식을 통해서 다른 도시 서사로 조직되는지를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를 단일 공간에 한정된 담화가 아니라, 도시 공간 속에서 분산되고 수행되는 의미 생성 장치로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reimas(1966)의 행위자 모델(actantial model)을 중심으로 박물관 전시에 나타나는 의미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텍스타일 문화가 왜 리옹과 맨체스터에서는 서로 다른 도시 서사로 구성되는가?

둘째, 이러한 의미 구조는 박물관 전시 속에서 어떤 행위자, 서사, 그리고 공간 구조를 통해 재현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도시브랜딩과 문화 자산

도시브랜딩(city branding)은 도시의 경쟁력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Kavaratzis, 2004; Anholt, 2007). 초기 연구는 도시를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도시의 역사, 문화, 생활양식과 같은 상징적 요소들이 도시 브랜드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Lucarelli & Berg, 2011).

실제로, Kavaratzis(2004)는 도시브랜딩을 단순한 마케팅 활동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과 상징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며, 도시 브랜드가 물리적 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의미를 통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Anholt(2007) 역시 도시와 국가의 이미지는 문화, 라이프스타일, 예술과 같은 문화적 자산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Lucarelli와 Berg(2011)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며 문화 산업과 상징 체계가 도시 브랜드 형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자산은 단순히 표현되는 이미지를 넘어, 특정한 경험과 실천, 그리고 공간적 조건 속에서 조직되는 의미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패션과 텍스타일 문화는 도시의 역사적 산업 기반과 미적 전통, 생활양식이 결합된 영역으로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매개로 기능한다(Steele, 2019; Capone & Lazzeretti, 2016).

패션 연구에서도 의복은 단순한 물질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가 부여된 문화적 실천으로 이해되어 왔다. Entwistle(2000)는 의복이 몸을 매개로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설명하며, Kawamura(2005)는 패션을 사회적 제도와 의미 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문화적 구조로 파악한다. 또한 Breward(2003)와 Steele(2019)은 패션

이 특정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도시를 상징하는 문화 코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패션과 텍스타일 문화는 단순한 산업이나 스타일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정체성을 조직하는 상징 체계이자 실천적 의미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텍스타일 유산과 박물관의 문화 서사

텍스타일 산업은 산업혁명 이후 유럽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산업유산(industrial heritage)의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 산업유산 연구에서는 과거 산업 활동이 단순한 생산 체계를 넘어 특정 지역의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문화 자산으로 이해된다.

Smith(2006)는 유산을 과거의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현재 사회가 과거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텍스타일 산업 역시 장인 전통, 기술 혁신, 노동의 기억, 혹은 산업화의 폭력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 체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에서 박물관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Bennett (1995)는 박물관을 근대 사회에서 지식과 문화적 가치가 조직되는 제도적 장치로 설명하며, Hooper-Greenhill(2000)은 박물관을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문화적 공간으로 파악한다. 최근 연구에서도 전시는 단순한 객체의 배열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조직하는 서사적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는 생산 기술, 노동, 물질, 그리고 문화적 기억이 결합된 복합적 의미 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전시는 단순한 산업사의 재현을 넘어, 특정 도시가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물관 전시는 단순한 담화적 재현을 넘어, 행위자, 서사, 그리고 공간이 결합된 의미 생성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전시 공간은 관람자의 이동과 지각, 참여를 조직함으로써 특정한 의미를 경험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를 통해 텍스타일 유산은 고정된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적으로 재구성되는 문화적 의미로 작동한다.

따라서 텍스타일 문화는 단순한 산업 유산을 넘어, 박물관 전시라는 기호적 장치 속에서 재구성되는 문화적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를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공간 구조가 결합된 의미 생성 장치로 간주하고, 텍스타일 문화가 각 도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화되는지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프랑스 리옹과 영국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두 도시는 각각 실크 산업과 면직물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텍스타일 도시로서 서로 다른 산업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리옹은 중세 이후 유럽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직물 생산과 장인 문화가 도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반면,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이후 면직물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방직 산업과 노동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 도시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두 도시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텍스타일 문화가 각 도시에서 어떠한 문화적 서사로 구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리옹의 경우 실크 산업과 직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까뉘의 집(Maison des Canuts)’과 ‘살아

있는 실크 유산(Soierie Vivante)’의 전시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맨체스터의 경우 산업혁명과 면직물 산업의 역사를 다루는 ‘과학 및 산업 박물관(Science and Industry Museum)’의 전시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 2. 연구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다음 세 가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째, 각 박물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제시된 전시 설명 자료와 기관 소개 텍스트이다. 이러한 자료는 박물관이 특정 산업과 문화 유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서사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담화 자료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박물관 전시 공간에서 제공되는 전시 설명 패널과 전시 구성 자료이다. 전시 패널은 특정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핵심적인 서사 장치로 기능한다.

셋째, 연구자의 현장 방문 관찰 자료이다. 연구자는 2026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리옹과 맨체스터의 관련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 공간의 구성, 전시 대상의 배열 방식, 관람 동선, 그리고 전시 경험의 구조를 관찰하였다. 현장 관찰은 단순한 방문 기록에 그치지 않고, 전시 공간의 구성 방식, 관람자의 이동 경로,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기록·정리되었으며, 이러한 관찰 내용은 전시의 공간 구조와 경험 구조를 분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한 텍스트 분석을 넘어, 전시 공간이 관람자의 지각과 이동, 참여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공간적 배치와 체험 구조를 중요한 분석 자료로 포함하였다. 이는 박물관 전시를 담화적 텍스트를 넘어 ‘공간적으로 구성된 의미 생성 장치’로 이해하려는 본 연구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 3. 분석 방법과 분석 절차

본 연구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박물관 전시가 텍스타일 문화를 어떤 의미 체계로 구성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Greimas(1966)의 ‘행위자 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한다. 행위자 모델은 서사 구조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호학적 도구로, 특정 행위자(subject)가 가치(object)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발신자(sender), 수신자(receiver), 조력자(helper), 반대자(opponent)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Greimas(1966)의 행위자 모델을 전통적인 서사 분석의 방식으로 직접 적용하여 발신자, 수신자, 조력자, 반대자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위자 모델이 제시하는 “의미가 특정 주체와 가치의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관점을 전시 분석에 확장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Fontanille(2008)는 의미 생성이 담화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practice)과 공간(space)의 조직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박물관 전시를 단순한 텍스트나 정보 전달의 장이 아니라, 공간적 배치와 관람자의 이동, 참여 행위를 통해 의미가 형성되는 기호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를 행위자, 서사, 공간, 물질적 대상이 결합된 의미 생성 장치로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전시 대상 및 맥락, 행위자, 서사, 공간이라는 네 가지 차원을 분석 축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좀 더 부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 대상 및 맥락 분석이다. 전시에서 강조되는 주요 전시 대상과 주제를 파악하여 텍스타일 문화가 어떠한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행위자 구조 분석이다. 전시 속에서 등장하는 장인, 노동자, 기계, 관람자 등의 행위자가 어떤 관계 속에서 조직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텍스타일 문화가 어떤 주체와 행위의 구조 속에서 의미화되는

지를 파악한다.

셋째, 서사 구조 분석이다. 전시가 어떠한 시간적 흐름과 사건의 배열을 통해 텍스타일 문화를 서사화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장인 서사, 산업 서사, 비판적 산업유산 서사와 같은 의미 구성 방식의 차이를 밝힌다.

넷째, 공간 구조 분석이다. 전시 공간이 관람자의 이동과 지각, 참여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전시가 ‘살았던 공간(lived space)’을 보존하는 방식인지, 혹은 ‘산업 시스템을 재현한 공간(reconstructed space)’으로 구성되는지를 규명한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첫째, 전시 대상과 주제를 통해 역사적 맥락을 파악한다.

둘째, 전시 속 주요 행위자를 식별하고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서사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 구성 방식을 도출한다.

넷째, 공간 구성과 관람 경험을 분석하여 전시의 의미 생성 방식을 해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리옹과 맨체스터의 박물관 전시가 텍스타일 문화를 어떠한 전시 대상,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 구조 속에서 도시의 문화적 의미 체계로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IV.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의 서사 구조 분석

### 1. 리옹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 분석

본 절에서는 ‘까뉘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를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조직 방식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 1.1.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적 배경

리옹은 중세 이후 유럽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온 도시로서 직물 생산과 장인 문화가 도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리옹의 크루아 루스(Croix-Rousse) 지역은 오랫동안 실크 직조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실크 직조 장인들은 ‘까뉘(Canuts)’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까뉘는 금실과 은실, 그리고 실크를 직조하는 장인으로서 리옹 실크 산업의 핵심 생산 주체였다.

리옹의 실크 산업은 16세기 이후 도시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전해 왔으며, 직조 기술과 장인 문화는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세기에는 직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카드(Jacquard)’ 직기가 발명되면서 실크 산업의 생산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오늘날 리옹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에서도 중요한 서사적 배경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늘날 리옹의 실크 문화는 단일한 박물관 제도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박물관, 협회, 공방, 상점, 체험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 공간을 통해 전시되고 재맥락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옹에는 직물 박물관(Musée des Tissus), 까뉘의 집, 살아있는 실크 유산과 같은 박물관이 존재하며, 이 밖에도 다수의 실크 공방과 판매 공간이 도시 곳곳에서 실크 문화를 현재화하고 있다. 이처럼 리옹의 실크 문화는 수집, 보존, 전시, 체험, 판매가 결합된 복합적 문화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성과 장인 전통, 그리고 기술의 현재적 전승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두 박물관, 즉 까뉘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직물 박물관은 리옹 텍스타일 유산을 대표하는 기관이지만, 본 연구의 수행 시점에는 리모델링으로 인해 전시 분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주요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1.2. ‘까뉘의 집’ 전시 구조와 서사

까뉘의 집의 전시는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와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은 크루아 루스 지역에 위치한 직조 공방 형태의 “아틀리에-박물관(atelier-museum)”으로서,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와 직조 기술을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전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까뉘의 집은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와 장인 전통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조직하는 전시 공간이며, 실크 산업의 역사성과 장인 문화를 박물관적 서사로 구성한다.

전시 공간에서는 실크의 기원과 누에의 생태, 실크 실의 생산 과정이 설명되며, 이어서 금실과 은실이 결합된 직물 제작 기술이 소개된다. 또한 리옹 실크 산업의 조직 구조로 알려진 리옹식 실크 생산 시스템(Lyon silk production system)의 형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1831년과 1834년에 발생한 까뉘 노동자들의 봉기 역시 전시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제시된다(Maison des Canuts, n.d.).

특히 전시에서는 19세기 자카드 직기의 발명과 직조 기술의 발전이 강조된다. 관람객은 실제 19세기 자카드 직기를 이용한 직조 시연과 직조 영상을 통해 실크 직조 기술의 작동 원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연은 박물관 전시의 핵심적인 체험 요소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 1) 전시 속 주요 행위자

까뉘의 집 전시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실크 직조 장인인 ‘까뉘’이다. 전시는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를 단순한 산업 발전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보다, 실크 직조 기술을 발전시켜 온 장인들의 역사로 서사화한다.

전시 속에서 까뉘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기술과 전통을 계승하는 장인으로 묘사된다. 이와 함께 직조 기술과 직물 생산 과정 역시 중요한 ‘전시 객체’로 등장한다. 실크 실, 직조기, 그리고 다양한 직물 샘플은

실크 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보여주는 주요 ‘전시 대상’이다.

또한 자카드 직기는 전시에서 중요한 ‘기술적 행위자’로 기능한다. 자카드 직기의 발명은 리옹 실크 산업의 생산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기술적 혁신으로 설명되며, 이러한 기술은 실크 직조의 정교함과 장인 기술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요소로 제시된다.

즉, 까뉘의 집에서 ‘중심 행위자’는 까뉘라는 ‘인간 행위자’와 자카드 직기라는 ‘기술 행위자’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두 행위자는 함께 리옹 실크 문화의 역사성과 기술적 전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까뉘의 집 전시의 주요 행위자와 기능

행위자	기능
까뉘 / 장인	실크 기술과 전통을 구현하는 핵심 주체
자카드 / 직기	기술 혁신과 직조 메커니즘을 가시화하는 장치
실크 / 직물	장인 기술의 결과물이자 미적·문화적 가치의 매개
리옹식 실크 생산 시스템	실크 생산을 조직하는 산업·사회 구조
관람자	장인 기술과 역사 서사를 이해하는 수용자

## 2) 전시 서사 구조

까뉘의 집의 전시는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와 장인 기술을 중심으로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 전시는 실크의 기원에서 시작하여 직조 기술의 발전과 장인 문화의 형성을 설명하는 연속적인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리옹의 텍스타일 문화는 단순한 산업 생산의 역사로 제시되기보다는 장인 기술과 도시 정체성을 결합하는 문화적 전통으로 설명된다. 특히, 까뉘 장인들의 역사와 직조 기술의 전통은 리옹 실크 산업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전시는 실크 산업이 리옹 도시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까뉘의 집의 전시는 리옹의 텍스타일 문화를 ‘산업 생산 중심

의 서사'를 넘어, 장인 기술과 문화적 전통을 중심으로 한 '장인 서사 (craft narrative)'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전시는 실크의 기원-기술의 발전-까뉘의 역사-도시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서사 연쇄를 통해 리옹을 '실크 장인의 도시'로 의미화한다.

### 3) 전시 공간과 경험 구조

까뉘의 집의 전시는 직조 공방 형태의 아틀리에-박물관이라는 공간적 형식 속에서 조직된다.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와 장인 기술을 관람자가 시각적·공간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해석의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실제 자카드 직기의 시연과 직조 영상은 관람자가 기술의 원리와 작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유도하며, 전시 경험을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감각적 이해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까뉘의 집의 공간은 실크 산업의 과거를 현재적으로 해석하도록 조직된 역사적 설명과 시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까뉘의 집은 '살았던 공간'의 물질성을 전면화하기보다, 역사적 의미와 장인 전통을 설명하고 가시화하는 전시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리옹 실크 유산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해석 가능하게 하는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 1.3.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 구조와 서사

본 절에서는 '살아있는 실크 유산' 전시를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조직 방식의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스스로를 단순한 박물관을 넘어 리옹의 실크 유산을 보존하는 유일한 협회로 규정한다. 홈페이지는 이 기관의 핵심 목적

을 “리옹 실크 유산의 보존(preservation of Lyon’s silk heritage)”으로 제시하며, 전시 역시 완결된 컬렉션의 제시보다는 원래의 장소에서 직조 작업장과 기술을 보존하고 작동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Soierie Vivante, n.d.). 이러한 점에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전시 공간이라기보다 보존된 작업장(logis de canuts)이자 살아 있는 기술 현장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크루아 루스 지역의 두 개 작업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나는 장식 직물 공예(passementerie, decorative trimming) 작업장이며, 다른 하나는 직조(weaving) 작업장이다. 전자는 장식 직물 공예 장인인 Henriette Létourneau의 옛 작업장이자 주거 공간으로, 19세기 및 20세기 초의 장식 직물 공예 기계들을 보존하고 있다. 후자는 19세기 후반 형성된 직조 장인 Rassicaud-Fighiera 가족의 직조 작업장의 내부 구조를 거의 온전히 유지한 채 활용되고 있다. 홈페이지는 이 두 작업장을 “마지막 까뉼 작업장”이자 “가족 작업장의 증거”로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 기관의 핵심 전시 대상이 단순한 직물 제품을 넘어 작업장 그 자체와 그 안의 삶의 방식임을 강조한다(Soierie Vivante, n.d.).

### 1) 전시 공간과 경험 구조

더욱이 이 두 작업장은 하나의 동일한 건물 안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약 550m 떨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어 관람자는 도보 이동을 통해 두 공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현장 관찰에 따르면 두 작업장은 실제로 도보 약 7~8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까뉼의 집 역시 이 두 작업장과 각각 약 7~8분, 3~4분 거리에 놓여 있다. 이처럼 세 공간은 크루아 루스 지역 안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관람자는 각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 까뉼들이 활동하던 지역의 분위기와 장소적 정체성을 연속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단일 전시장 내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공간

속 이동과 주변 환경의 경험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전시 구조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관의 전시는 정적인 진열보다 기계의 실제 작동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홈페이지는 “당신을 위하여 실제로 작동하는 직기를 확인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직조의 원리와 자카드 메커니즘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데 큰 비중을 둔다(Soierie Vivante, n.d.). 이는 전시 객체가 단순한 과거의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도 작동 가능한 기술적 장치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는 두 작업장 모두 높은 천장을 갖추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대형 직조기를 실제로 설치하고 작동시키기 위한 공간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바닥은 직기의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는 작업장 공간이 단순한 배정이 아니라 장인 기술과 노동 방식이 물질적으로 각인된 장소임을 보여준다. 즉, 이 공간의 건축적 특성은 직조 기술의 수행 조건이자, 기술과 삶의 방식이 공간 속에 응축된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현장 관찰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자율 관람이 아니라 ‘가이드 투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모든 방문자는 설명, 시연, 체험의 순서를 따라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경험을 형성하는 방식을 체험하였다. 각 작업장에서는 해설자와 함께 약 40분 가량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직기의 구조와 작동 원리가 설명되고 실제 시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관람자의 경험을 시간적으로도 조직함으로써, 전시를 단순한 자유 관람이 아니라 일정한 해석 경로와 리듬을 따라가는 서사적 장치로 만든다. 나아가 이 서사 경로는 개별 작업장 내부에만 한정되지 않고, 두 작업장 사이의 이동 과정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확장된 전시 경험을 형성한다.

나아가 관람자는 단순한 관찰자나 학습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니

직기를 활용한 체험 과정에서 관람자는 직접 직조를 수행하며, 각자의 속도와 선택에 따라 직물을 완성한다. 특히 어린이, 가족, 성인, 생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맥락에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은, 이 전시가 ‘보는 전시’를 넘어 ‘수행적 전시(performative exhibition)’, 즉 반복적 실천을 통해 의미가 구성되는 전시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중요한 점은 체험 프로그램이 단순한 참여에 그치지 않고, 각 관람자가 자신의 결과물을 생산하고 이를 가져간다는 점이다. 이는 전시가 과거의 기술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관람자를 통해 기술이 다시 생산되는 유산의 재생산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2) 전시 속 주요 행위자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장인으로서의 ‘까뉘’, 그리고 그 기술을 현재로 연결하는 ‘전승자’이다. 홈페이지는 까뉘를 단순한 과거의 노동자가 아니라, 작업장과 기술, 그리고 도시의 기억을 이어 온 존재로 위치시킨다. 특히 Henriette Létourneau, Rassicaud-Fighiera 가문, 그리고 이를 보존하려 한 시민, 학자, 직물 전문가 및 시 당국의 협력이 전시의 배후에 있는 핵심 행위자 집단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전시는 단순한 산업사 서술을 넘어, “누가 이 유산을 지켜왔는가”에 대한 전승의 서사를 구성한다.

특히 현장에서는 두 작업장 모두에서 여성 까뉘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이는 이 전시에서 마지막까지 작업장을 지키고 이 공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랐던 주체로 여성 장인이 특히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단순한 장인 서사를 넘어, 여성 장인을 핵심 전승 주체로 부각하는 경향을 보이며, 젠더화된 전승 서사의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직기와 자카드 메커니즘이다. 이들은 단순한 전시 물건을 넘어 전시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중심 장치로 기능한다. 직기의 움직임과 소리, 구조가 강조된다는 점은 기술 장치가 단순한 도구

를 넘어 의미 생성의 핵심 매개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관람자 역시 핵심 행위자로 구성된다.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관람자를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직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 직접 직조를 수행하는 자, 자신의 결과물을 생산하는 자로 호명한다. 이는 관람자가 전시의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기술 전승 과정에 참여하는 수행자이자 생산자로 위치 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행위자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살아있는 실크 유산 전시의 주요 행위자와 기능

행위자	기능
까뉘 / 장인(특히 여성 장인)	기술과 전통의 역사적 주체
협회 / 보존자	유산을 현재로 이어주는 매개자
직기 / 자카드 기계	기술적 의미를 가시화하는 장치
관람자 / 수행자 / 생산자	기술 전승에 참여하고 결과물을 생산하는 행위자

### 3) 전시 서사 구조

이와 같이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는 과거의 장인, 현재의 보존 주체, 그리고 참여하는 관람자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며 ‘실크 유산의 지속’이라는 의미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나아가 그 중심에는 작업장을 끝까지 지키고 남긴 여성 장인의 존재가 위치하며, 이는 전시의 전승 서사를 더욱 구체적이고 인물 중심적인 차원으로 조직한다.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작업장과 기계를 구하고 보존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서 보존된 작업장이 단순한 과거의 흔적을 넘어 현재에도 작동하는 장소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관람자와 아동, 학생, 가족이 직조를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이 유산이 미래로 전승된다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 전시에서 실크 문화는 단순한 과거의 산업 유산을 넘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학습되고 계승되는 생활 기술이자 지역 유산으로 의미화된다. 특히 작업장-주거 공간, 마지막 까뉼 작업장, 실제 작동하는 직기,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요소들은 리옹의 실크 유산을 박제된 과거를 넘어 ‘살아 있는 전통’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더해, 이 전시는 여성 까뉼가 마지막까지 작업장을 지키고 보존을 염원했다는 이야기를 통해, 유산의 지속을 특정한 인간 주체의 기억과 실천 속에서 서사화한다. 따라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승은 단순히 기술의 존속만이 아니라, 공간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주체들의 의지를 계승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리옹의 텍스타일 문화를 장인 서사이자 동시에 살아있는 유산 서사로 구성한다. 여기서 강조되는 가치는 대량 생산이나 산업 효율성이 아니라, 장소의 진정성, 기술의 지속성, 세대 간 전승, 그리고 도시 정체성과의 긴밀한 연결이다.

즉,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전시는 유산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유산의 현재화’와 ‘참여적 계승’을 통해 리옹의 실크 문화를 동시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전시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이 현재화는 단지 전시장 내부의 체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작업장 사이를 걸어 이동하는 도시적 경험, 직기와 공간의 물질적 조건을 감각적으로 인지하는 경험, 그리고 여성 장인을 중심으로 한 전승 서사를 따라가는 해석 과정이 결합되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형성된다.

#### 1.4. 까뉼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차이

두 기관은 모두 리옹의 실크 문화를 다루지만, 그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는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조직 방식이라는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두 전시가 서로 다른 의미 생성 체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리옹 텍스타일 박물관의 의미구성 방식

항목	까뉘의 집	살아있는 실크 유산
중심 초점	실크 산업의 역사와 까뉘 서사	작업장 보존과 기술 전승
전시 성격	역사 설명형 아틀리에-박물관	살아 있는 작업장형 유산 공간
핵심 행위자	까뉘, 자카드, 리옹식 실크 생산 시스템	까뉘, 보존 협회, 직기, 관람자
중심 가치	역사적 정체성, 장인 전통	보존, 작동, 전승, 체험
서사 유형	장인 역사 서사	살아있는 유산 서사
공간 조직 방식	단일 공간 중심의 전시 구성	도시 공간에 분산된 두 작업장의 연결 구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리옹의 텍스타일 문화는 단일한 방식으로 제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 생성 체제를 통해 구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두 기관의 공식 담화뿐 아니라 연구자의 현장 방문에서 확인된 전시 동선, 시연 방식, 공간 구성의 차이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의미 생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산업 역사와 장인 전통을 서사화하는 역사적 장인 서사 체제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작동과 체험을 통해 기술을 지속시키는 살아 있는 유산의 수행적 체제이다.

그러나 이 두 전시가 공유하는 중요한 공통점은, 모두 ‘작업장-주거 공간’이라는 장소적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크루아 루스의 까뉘 작업장은 생산 공간과 생활 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구조를 가지며, 직조 활동은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은 채 수행되었다. 이러한 공간 구조는 단순한 배경을 넘어, 장인 기술과 삶의 방식이 동시에 조직되는 의미 생성의 조건으로 기능한다.

까뉘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모두 이러한 작업장-주거 공간을 전시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옹의 실크 문화를 추상

적 산업사나 기술사로 환원하지 않고, 구체적인 장소성과 삶의 맥락 속에서 제시한다. 즉, 이 두 전시는 공통적으로 ‘살았던 공간’을 보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실크 유산을 물질적 대상을 넘어 삶과 결합된 실천으로 의미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시는 이 동일한 장소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한다. 까뉘의 집이 작업장 공간을 역사적 설명과 해석의 대상으로 구성하는 반면,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동일한 공간을 실제 작동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수행적 장으로 전환한다. 전자가 장소를 ‘기억의 매개’로 활용한다면, 후자는 장소를 ‘실천의 장’으로 활성화한다. 더 나아가 까뉘의 집이 비교적 하나의 전시 공간 안에서 경험이 조직되는 반면,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약 550m 떨어진 두 작업장을 연결하는 이동 경로를 포함함으로써, 도시 공간 속에 분산된 유산 경험을 구성한다. 이 점에서 후자는 단일한 박물관 건물이라기보다 관람자의 이동을 통해 완성되는 ‘분산된 유산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경우, 공간은 단지 과거의 장소를 보존한 데 그치지 않는다. 높은 천장과 직기의 진동을 견디도록 구성된 바닥과 같은 물질적 조건은, 직조 노동의 흔적이 공간 속에 현재까지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작업장은 단순한 전시 배경이 아니라, 기술의 수행 조건과 장인의 삶의 방식이 응축된 물질적 기억의 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까뉘의 집에서는 이러한 장소성이 주로 역사적 설명과 시연을 통해 해석의 대상으로 제시되며,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처럼 공간 자체가 전승의 수행 현장으로 전면화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두 전시는 전승의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까뉘의 집이 까뉘를 리옹 실크 산업의 역사적 주체이자 장인 전통의 상징으로 제시한다면,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유산을 끝까지 지키고 남긴 여성 장인의 존재를 부각함으로써 전승의 서사를 더욱 구체적이고 인물 중심적으로 조직한다. 특히 여성 까뉘를 중심으로 조직된 전승 서사는, 이 유산이 단순한 구조물이나 기계의 보존이 아니라 특정 주체들

의 실천과 의지에 의해 지속되어 온 살아 있는 역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두 전시는 함께 리옹의 텍스타일 문화를 단순한 산업 유산이 아니라, 장인 기술, 장소성, 그리고 기술 전승의 실천이 결합된 복합적 의미 체계로 구성한다. 다시 말해, 리옹의 실크 문화는 기억되는 유산과 수행되는 유산, 그리고 살았던 공간으로서의 유산이라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의미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의 경우, 이러한 의미화는 단일 전시장 내부가 아니라 도시 공간 속에 분산된 두 작업장을 관람자의 이동으로 연결하는 방식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리옹의 실크 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거나 보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간, 기술, 신체, 기억, 그리고 전승 주체가 결합된 살아 있는 문화적 실천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 2. 맨체스터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 분석

본 절에서는 맨체스터 텍스타일 박물관의 전시를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조직 방식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 2.1. 맨체스터 면직물 산업의 역사적 배경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이후 세계 면직물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한 대표적인 산업 도시이다. 특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사이 맨체스터와 그 주변 지역은 방적과 직조, 기계 제작, 운송과 무역이 결합된 거대한 면직물 생산 체계를 형성하였고, 이로 인해 “코튼폴리스(Cottonopolis)”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맨체스터의 산업 발전은 단지 지역 경제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공간 구조와 노동 체계, 나아가 세계적 무역 네트워크를 재편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산업적 발전은 맨체스터를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로 자리매김

하게 했다. 과학 및 산업 박물관 홈페이지 역시 맨체스터를 “세계를 바꾼 아이디어와 혁신이 시작된 곳”으로 규정하며, 산업혁명과 대량생산, 기술 혁신이 도시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제시한다 (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특히 텍스타일 산업은 이러한 도시 정체성의 중심축으로 제시되며, 면직물 생산이 맨체스터를 근대적 산업 대도시로 변화시켰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동시에 최근의 전시 담화는 면직물 산업의 변영이 단지 혁신과 성장의 결과만이 아니었음을 함께 드러낸다. 박물관은 맨체스터의 면직물 산업이 대서양 횡단 노예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산업 발전과 이윤 축적이 지역적·세계적 차원의 착취와 불평등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산업은 기술 혁신의 역사이자, 동시에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노예제와 연결된 산업사로 재구성된다.

## 2.2.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의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은 맨체스터의 과학·산업 유산 전반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그 안에서 ‘텍스타일 갤러리’는 맨체스터의 도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전시 공간으로 기능한다. 홈페이지는 이 전시를 “맨체스터는 면직물 위에서 세워졌다(Manchester is built on cotton)”라는 선언적 문장으로 시작하며, 맨체스터의 도시 형성과 산업 발전을 면직물 산업과 직접 결부시킨다(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이는 텍스타일이 단순한 산업 부문의 하나가 아니라, 도시 자체를 구성한 기초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 전시는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문화를 단순한 생산 기술의 역사로 제시하기보다, 도시 형성과 산업 자본주의의 전개를 설명하는 핵심 서사 공간으로 기능한다.

텍스타일 갤러리의 전시는 사람들(people), 장소(places), 제품(products), 그리고 혁신(innovations)을 따라가는 구조로 조직된다. 전시에서는 산

업혁명의 대표적 발명가인 Richard Arkwright가 개발한 ‘수력 방적기(Water Frame)’와 같은 핵심 기계가 제시되며, 방적과 직조, 인쇄와 마감, 공장 노동과 도시 생활의 전반이 하나의 연속된 산업 서사 안에서 설명된다. 또한 어린이의 나막신, 공장 내부의 먼지와 소음, 사고와 질병, 아동 노동자의 증언 등 일상적·사회적 객체들이 함께 제시됨으로써 산업의 물질성과 폭력성, 그리고 사회적 결과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특히 이 전시는 면직물 산업의 세계적 연결망을 강하게 강조한다. 1860년 당시 맨체스터 인근 공장에서 가공된 면화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남부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산업 발전이 글로벌 착취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글로벌 위협(Global Threads) 프로젝트 역시 이러한 세계적 연결을 가시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텍스타일 도시(Textile City)’와 같은 체험형 설치 작품과 시연 프로그램은 관람자가 직조를 시도하거나 기계를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는 리옹의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 나타나는 기술 수행과 결과물 생산의 형태를 넘어, 산업 원리와 생산 과정, 그리고 그 사회적 비용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교육적 참여’에 가깝다.

### 1) 전시 속 주요 행위자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의 텍스타일 갤러리에서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는 산업 노동자(worker)와 기계(machine)이다. 전시는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문화를 장인의 전통이나 개별 기술자의 역사로 서사화하기보다, 대규모 생산 체계 속에서 작동하는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한다.

노동자는 단지 추상적 ‘생산 주체’가 아니라, 먼지와 소음, 사고와 질병 속에서 일했던 ‘구체적 몸’으로 나타난다. 홈페이지에는 노동자의 삶을 구조적 착취와 자본주의 문제로 분석한 사회이론가 Friedrich Engels의 기록, 19세기 영국 섬유공 노동자 Samuel Hird의 증언, 직조공으로

일했던 여성 노동자 Marjory Shaw의 회고 등이 노동자를 산업적 성공 뒤에 놓인 고통과 착취의 주체로 재현되고 있음을 설명한다(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특히 아동 노동, 작업장 사고, 호흡기 질환, 소음과 피로에 관한 서술은 노동자의 육체를 산업 생산의 비용이자 증거로 드러낸다.

전시에서 또 하나의 핵심 행위자는 ‘기계’이다. 수력 방적기, 방적 기계, 직조기, 보빈, 증기 엔진 등은 산업혁명의 동력과 대량생산 체계를 상징하는 주요 기술 장치로 제시된다. 리옹의 전시에서 자카드 직기가 장인 기술과 결합된 기술 행위자로 등장했다면, 맨체스터의 전시에서는 이러한 기계들이 면직물 산업의 대량생산 체계를 가능하게 한 산업적 행위자로 등장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전시에서 기계는 단순한 기술 장치를 넘어 생산력의 확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시화하는 매개로 작동하며, 맨체스터를 ‘산업 도시’로 변화시킨 역사적 동력을 상징한다.

더 나아가 목화 즉, 면화 자체도 중요한 행위자적 위치를 가진다. 면화는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맨체스터를 세계와 연결한 매개이며, 동시에 노예제, 무역, 제국의 회로를 드러내는 매개체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전시의 핵심 행위자 구조는 노동자, 기계, 면화라는 세 요소의 결합을 중심으로 조직되며, 이들은 함께 맨체스터 텍스타일 문화의 산업성과 세계적 연결성을 구성한다.

이를 행위자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과학 및 산업 박물관 전시의 주요 행위자와 기능

행위자	기능
노동자 / 아동 노동자	산업 생산의 핵심 인적 주체
기계 / 방적기 / 직조기	대량생산과 산업 변환의 기술적 장치
면화	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산업적 매개
제조업자 / 공장주	생산과 이윤 구조를 조직하는 행위자
노예제 / 플랜테이션 체계	산업 발전의 숨겨진 구조적 기반
관람자 / 참여자	산업 과정을 학습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수용자

즉, 과학 및 산업 박물관에서 맨체스터 텍스타일 서사의 중심은 기계를 통해 면화를 생산물로 전환하는 노동 체계에 있으며, 이는 지역적 공장 노동과 세계적 착취 구조를 동시에 드러내는 복합적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 2) 전시 서사 구조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의 텍스타일 갤러리는 기본적으로 ‘혁신-생산-도시 성장-세계 연결-비판적 재독해’의 구조를 가진다. 전시는 산업혁명의 동력으로서 면직물 산업을 제시하면서, 면화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연결한 과정을 서술한다.

그러나 이 전시는 산업 발전을 일방적인 진보의 서사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기계 혁신과 도시 번영의 서사에 더해, 불평등과 착취, 아동 노동, 질병, 노예제와의 연결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산업 발전의 이면을 드러낸다. 즉, 이 전시는 맨체스터를 단순한 성공 서사의 공간을 넘어, 성취와 폭력이 공존하는 복합적 기억의 공간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점에서 맨체스터의 전시는 리옹의 장인 서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텍스타일 서사를 구성한다. 여기서 텍스타일은 장인 전통의 기호가 아니라 산업 생산과 세계 자본주의의 회로를 드러내는 산업적 기호로 기능한다. 따라서 이 전시는 ‘산업 서사’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산업유산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 3) 전시 공간과 경험 구조

또한 현장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의 텍스타일 전시는 단순한 전시 객체의 배열을 넘어 공간적 배치를 통해 의미를 조직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1층의 넓고 분절되지 않은 전시 공간은 대형 기계와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람자가 산업혁명기의 공장 내부에 들어온 것과 같은 감각을 경험하도록 한다. 현장 관찰 결과, 이러한 전시는 관람자로 하여금 산업 생산의 규모성과 기계 소음을 신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이 공간은 리옹의 까뉘 작업장과 달리 실제 생산과 생활이 결합된 작업장-주거 공간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을 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시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맨체스터의 전시는 ‘살았던 공간’을 넘어 ‘재구성된 산업 공간(reconstructed industrial space)’ 위에서 조직된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산업 생산의 규모성과 물질성을 신체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면 2층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산업 기술이 이해 가능한 지식의 대상으로 재구성된다. 또한 기차역 건물을 활용한 전시 공간은 생산과 운송, 기술 인프라가 결합된 산업 시스템을 공간적으로 가시화한다.

이처럼 과학 및 산업 박물관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 서사를 조직하고 관람자의 해석을 유도하는 기호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공간 경험은 관람자의 위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한다. 관람자는 대형 기계와 넓은 전시 공간 속에서 산업 생산의 규모와 물질성을 시각적·신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지만, 동시에 실제 생산 과정에 개입하기보다는 이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위치에 놓인다. 즉, 맨체스터의 전시는 관람자를 산업 시스템을 해석하는 ‘관찰자(observer)’로 위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리옹의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 나타나는 참여적·수행적 경험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리옹에서는 관람자가 직조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결과물을 생산하는 수행자로 조직되는 반면, 맨체스터에서는 체험 프로그램이 주로 산업 원리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적 참여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맨체스터의 전시는 참여를 통해 기술을 수행하게 하기보다, 산업 생산의 구조와 그 사회적 의미를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적 참여(educational participation)’의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 3. 리옹과 맨체스터 텍스타일 박물관 전시의 비교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리옹과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관련 전시

는 모두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문화 자산으로서 텍스타일을 제시하지만, 그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두 도시 모두 텍스타일 산업을 도시 발전의 중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가 강조하는 행위자, 객체, 가치,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의 조직 방식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배열된다.

이러한 비교는 전시 대상과 역사적 맥락,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적 조직 방식이라는 분석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두 도시의 전시가 서로 다른 의미 생성 체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전시의 중심 행위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리옹의 경우 까뉘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 모두 실크 직조 장인인 까뉘를 핵심 행위자로 전면에 배치한다. 여기서 까뉘는 단순한 노동자를 넘어 기술과 전통을 계승하는 장인이자 도시 문화의 형성 주체로 의미화된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는 장인뿐 아니라 유산을 보존하는 협회, 작동하는 직기, 그리고 기술 전승에 참여하는 관람자까지가 하나의 행위자 체계를 구성한다. 더 나아가 최근 전시에서는 여성 까뉘의 존재가 이 전시 맥락에서 전승의 주요 주체로 특히 부각되며, 장인 서사가 보다 구체적이고 인물 중심적인 전승 서사로 재구성되고 있다. 반면 맨체스터의 과학 및 산업 박물관에서는 중심 행위자가 장인이라기보다 산업 노동자와 기계, 그리고 면화를 둘러싼 생산 체계로 이동한다. 노동자는 산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적 주체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착취와 질병, 사고의 경험을 겪는 몸으로 재현된다. 또한 기계는 생산 효율과 산업혁명의 동력을 상징하는 핵심 기술 행위자로 부각된다. 즉, 리옹이 장인 중심의 인간-기술 결합 구조를 보인다면, 맨체스터는 노동자-기계-원재료의 산업 체계를 중심으로 텍스타일을 구성한다.

둘째, 전시 객체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분명하다. 리옹 전시의 핵심 객체는 실크, 직조기, 자카드 메커니즘, 작업장 내부 구조와 같은 요소들이다. 이 객체들은 단순한 생산 도구를 넘어 장인 기술과 장소의 진정

성, 그리고 리옹 실크 문화의 정교함을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한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는 작업장 그 자체가 하나의 전시 객체로 의미화되며, 생활과 생산이 결합된 까뉼의 공간 구조가 강조된다. 이때 작업장은 높은 천장과 진동을 흡수하는 바닥과 같은 물질적 조건을 통해 직조 노동의 흔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공간으로 제시되며,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기술과 삶이 각인된 물질적 장소로 기능한다. 즉, 리옹의 전시 객체는 개별 물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작업장-주거 공간’ 전체를 포함하는 장소적 객체로 확장된다. 반면 맨체스터의 전시는 수력 방적기, 방적 기계, 직조기, 보빈, 면화 샘플, 노동자의 일상 용품 등 산업 생산의 물질적 기반을 보여주는 객체들로 구성된다. 여기서 객체는 개별 기술의 아름다움보다는 생산 규모와 산업 체계, 그리고 공장 노동의 물질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기능한다. 맨체스터의 경우 전시 객체는 ‘살았던 공간’의 보존이라기보다, 산업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선별·배치된 재현의 요소들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리옹과 구별된다. 요컨대 리옹의 객체들이 장인성과 살아있는 유산을 가시화한다면, 맨체스터의 객체들은 산업적 생산과 비판적 산업유산을 가시화한다.

셋째, 서사 구조의 차이도 뚜렷하다. 리옹의 전시는 실크의 기원, 직조 기술의 발전, 까뉼의 역사, 그리고 도시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 까뉼의 집에서는 역사적 장인 서사가 중심을 이루고, 살아있는 실크 유산에서는 보존-작동-전승의 구조를 통해 실크 기술이 현재에도 살아 있는 유산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리옹의 텍스타일 서사는 궁극적으로 장인 기술과 도시 전통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반면 맨체스터의 전시는 혁신-생산-도시 성장-세계 연결-비판적 재독해라는 구조를 가진다. 면직물 산업은 도시를 변화시킨 원동력으로 제시되지만, 동시에 불평등, 아동 노동, 노예제, 제국주의적 무역 질서와 연결된 유산으로 재서술된다. 따라서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서사는 산업혁명의 진보 서사이자 동시에 그 이면의 폭력을 드러내는 비판적 산업유산 서사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리옹의 서사가 기억되는 장인 전통과 수행되

는 유산의 이중 구조를 가진다면, 맨체스터의 서사는 산업 발전의 기억과 그에 대한 비판적 재독해의 이중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두 전시는 도시 정체성과 텍스타일의 관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한다. 리옹에서 텍스타일은 도시의 장인 문화와 장소성을 응축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실크는 리옹의 역사적 명성과 기술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이며, 작업장과 직조 기술은 도시의 자부심과 연결된다. 특히 리옹에서는 텍스타일이 단순한 산업 생산의 흔적이 아니라, 삶과 노동이 결합된 살았던 공간 속에서 전승되는 도시적 기억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더해 이러한 기억은 여성 장인을 중심으로 한 전승 서사와 결합되면서, 텍스타일을 특정 주체의 삶과 실천이 응축된 문화적 자산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비해 맨체스터에서 텍스타일은 도시를 형성한 산업적 동력으로 의미화된다. 면화와 기계, 공장과 노동은 맨체스터를 “세계 최초의 산업 도시”로 만든 핵심 요소이며, 박물관 전시는 이를 통해 도시의 산업적 유산을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맨체스터는 단지 영광스러운 산업 도시로만 제시되지 않고, 식민주의와 노예제의 글로벌 구조 속에서 형성된 도시로도 함께 제시된다. 즉, 맨체스터에서 텍스타일은 살았던 공간의 보존이라기보다, 산업 시스템 전체를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다섯째, 공간의 의미화 방식 역시 두 도시를 가르는 핵심 차이로 나타난다. 리옹의 경우 까뉘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모두 과거의 작업장-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하며, 생산과 생활이 결합된 장소성을 전시의 핵심 조건으로 삼는다. 이때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장인 기술과 일상적 삶이 함께 조직되던 살았던 공간으로 기능한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두 개의 작업장이 분산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 유산이 단일 건물 안에 응축된 형태가 아니라 도시 공간 속에서 관람자의 이동과 연결을 통해 경험되는 네트워크형 구조를 띤다. 반면 맨체스터의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은 산업혁명기의 기계와 생산 체계를 대규모 전시 공간 속에 재배치함으로써 산업 시스템의 규모성과 복잡성을 체험하게 한

다. 따라서 이 공간은 실제 노동과 생활이 이루어지던 장소라기보다, 산업 질서를 재현하고 해석하기 위해 구성된 ‘재구성된 산업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리옹이 장소의 진정성과 생활세계의 밀도, 직조 노동의 물질적 흔적이 각인된 공간성, 그리고 도시 공간 속 이동의 경험을 통해 의미를 생산한다면, 맨체스터는 시스템의 규모와 구조를 시각화하는 집약적 재현 공간을 통해 의미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리옹의 경우 이러한 공간성은 여성 장인을 중심으로 한 전승 기억과 결합되면서, 텍스타일 유산을 단순한 기술 유산이 아니라 삶과 노동, 기억이 중첩된 도시적 유산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호학적으로 볼 때 두 도시가 텍스타일에 부여하는 가치 체계의 차이로도 정리할 수 있다. 리옹에서는 텍스타일이 장인성, 전통, 장소의 진정성, 기술 전승과 같은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반면 맨체스터에서는 텍스타일이 생산, 혁신, 산업 성장, 그리고 그 이면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의미화된다. 즉, 리옹의 텍스타일 서사가 장인 서사와 살아있는 유산 서사에 가깝다면,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서사는 산업 서사와 비판적 산업유산 서사에 가깝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리옹과 맨체스터 텍스타일 전시의 비교

항목	리옹	맨체스터
중심 행위자	까뉘, 장인, 보존 협회, 관람자	노동자, 기계, 면화, 제조업자
핵심 객체	실크, 자카드 직기, 작업장, 생활공간	방직기, 직조기, 면화, 공장 노동 관련 물품
중심 가치	장인성, 전통, 전승, 장소성	생산, 혁신, 산업 성장, 비판적 기억
서사 구조	역사적 장인 서사 / 살아있는 유산 서사	산업혁명 서사 / 비판적 산업유산 서사
공간 구조	작업장-주거 기반의 살았던 공간	산업 시스템을 재현한 전시 공간
도시 정체성	실크 도시, 장인 도시	산업 도시, 코튼폴리스

결국 리옹과 맨체스터의 박물관 전시는 동일한 텍스타일 문화를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과 도시 정체성에 따라 상이한 의미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리옹에서 텍스타일은 장인 전통과 생활 기술의 지속성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상징으로 제시되는 반면, 맨체스터에서는 산업 생산과 세계 자본주의의 회로를 드러내는 산업적 유산으로 재현된다. 더 나아가 리옹이 텍스타일을 ‘기억되고 수행되는 유산’으로 제시한다면, 맨체스터는 그것을 ‘재현되고 비판적으로 재독해되는 산업유산’으로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타일은 단일한 산업 범주가 아니라, 각 도시의 역사와 가치 체계, 그리고 공간 조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의미화되는 문화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텍스타일 산업이라 하더라도 각 도시가 그것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상이한 가치 구조 속에서 조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텍스타일 문화가 도시의 문화적 의미와 정체성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프랑스 리옹과 영국 맨체스터의 텍스타일 관련 박물관 전시를 기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를 단순한 산업사 재현을 넘어, 특정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조직하는 기호적 장치로 이해하고, 전시 속 행위자 구조와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텍스타일 문화가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리옹과 맨체스터는 모두 텍스타일 산업을 도시 발전의 중요한 역사적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전시에서 구성되는 텍스타일 문화의 의미 체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리옹의 까뉼의 집과 살아있는 실크 유산 전시는 실크 직조 장인인 까뉼,

직조 기술, 그리고 작업장-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의 장인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서사화하였다. 특히 살아있는 실크 유산은 실제 작동하는 직기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실크 문화를 살아 있는 전통으로 구성함으로써, 텍스타일을 ‘수행되고 전승되는 유산’으로 의미화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승은 단순한 기술의 지속이 아니라, 이 전시 맥락에서 특히 부각되는 여성 까뉘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주체들의 실천과 기억을 통해 유지되어 온 과정으로 드러났다.

반면 맨체스터의 과학 및 산업 박물관은 노동자, 기계, 면화, 그리고 세계적 무역망을 중심으로 면직물 산업과 도시 성장의 역사를 서사화하였다. 이 전시는 면직물 산업을 산업혁명의 상징적 사례로 제시하는 동시에,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기반한 착취 구조를 함께 드러냄으로써 텍스타일 유산을 ‘재현되고 비판적으로 재독해되는 산업유산’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두 도시의 차이는 공간 구성 방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리옹의 전시는 생산과 생활이 결합된 작업장-주거 공간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타일 유산을 ‘살았던 공간’ 속에서 제시하는 반면, 맨체스터의 전시는 산업 시스템을 재구성한 박물관 공간을 통해 텍스타일을 ‘재현된 산업 공간’ 속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차이는 텍스타일 유산이 경험되는 방식이 ‘삶의 연속성’으로 조직되는가, 혹은 ‘산업 시스템의 재현’으로 조직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특히 리옹의 경우, 분산된 작업장 사이를 이동하는 관람 경험과 직조 노동의 물질적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구조가 결합되면서, 전시는 도시 전체에 확장된 경험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의 문화 자산이 단순한 산업이나 콘텐츠의 집합이 아니라, 전시라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특정한 행위자 배열, 서사 구조, 그리고 공간 구성 방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박물관 전시는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해석하고 조직하는 기호적 실천의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고 간주할 수 있겠다. 또한

동일한 산업 유산이라 하더라도 각 도시의 역사적 경험과 가치 체계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로 구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업유산 연구가 경제사적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가 과거를 어떠한 서사로 재구성하여 현재의 정체성으로 전환하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를 단일 공간에 한정된 담화가 아니라, 도시 공간 속에서 분산되고 수행되는 의미 생성 장치로 확장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전시는 객체의 배열을 넘어, 공간, 이동, 참여가 결합된 복합적 의미 생성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본 연구는 행위자 구조, 서사 구조, 공간 구조를 통합한 분석 틀을 적용함으로써, 박물관 전시를 다층적인 기호적 실천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박물관 전시를 의미를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행위자, 서사, 그리고 공간이 결합된 의미 생성 장치로 개념화하고, 텍스타일 유산이 도시 맥락 속에서 기억되는 방식, 수행되는 방식, 그리고 재현되는 방식으로 상이하게 조직될 수 있음을 제시한 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전시 장치의 구조적 구성—즉 행위자 구성, 서사 조직, 공간 형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공간의 물질적 조건과 전승 주체의 구성 방식이 의미 생성 과정에 핵심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시 분석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텍스타일 산업이라는 특정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박물관 전시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범위의 한계 역시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션 박물관이나 디자인 박물관과 같은 다른 유형의 문화 기관을 포함하여 텍스타일과 패션 문화가 도시 정체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보다 폭넓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파리나 밀라노와 같은 패션 중심 도시도 포함한 비교 연구를 통해 텍스타일과 패션 문화가 도시 문화 서사 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방식

으로 의미화되는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텍스타일 문화는 단순한 산업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호적 매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실제로, 리옹과 맨체스터의 사례는 동일한 물질 문화라 하더라도, 전시 장치의 구조와 도시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 체계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텍스타일 문화는 도시의 문화적 자기이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분석 대상이자, 도시 문화 연구에서 물질 문화와 전시 장치, 의미 생성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접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참고문헌

- 박주희·최현숙(2012), 「한국 패션 박물관 건립을 위한 패션 박물관의 기능과 현황 연구」, 『복식』, 62-5, 156-170.
- 예민희·임은혁(2019a), 「박물관 패션전시의 유형화」, 『한국의상디자인 학회지』 21-3, 81-91.
- 예민희·임은혁(2019b), 「패션투어리즘에서의 패션박물관의 역할」, 『패션비즈니스』 23-2, 34-47.
- 강영숙·권진(2025), 「강릉지역 박물관의 전통복식 유물 현황에 대한 연구」, 『한복문화』 28-2, 101-123.
- Anholt, S. (2007), *Competitive Identity: The New Brand Management for Nations, Cities and Region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Bennett, T. (1995), *The Birth of the Museum: History, Theory, Politics*, London: Routledge.
- Breward, C. (2003), *Fash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pone, F., and Lazeretti, L. (2016), “Fashion and city branding: An analysis of visitors’ perception of Florence as a fashion city”,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7(3), 166-180.
- Entwistle, J. (2000), *The Fashioned Body: Fashion, Dress and Modern Social Theory*, Cambridge: Polity Press.
- Fontanille, J. (2008), *Pratiques sémiotiques*,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Greimas, A. J. (1966), *Sémantique Structurale*, Paris: Larousse.
- Hooper-Greenhill, E. (2000), *Museums and the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 London: Routledge.
- Kavaratzis, M. (2004), “From city marketing to city branding: Toward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developing city brands”, *Place Branding*, 1(1), 58-73.

- Kawamura, Y. (2005), *Fashion-ology: An Introduction to Fashion Studies*, Oxford: Berg.
- Lee, S. H. (2012), “Culture marketing for an urban tourist attraction by local government: A case study of Hanok Village in Jeonju,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12(1), 45-63.
- Lucarelli, A., and Berg, P. O. (2011), “City branding: A state-of-the-art review of the research domain”,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4(1), 9-27.
- Ryu, J. (2011), “Fashion districts and urban development: The case of Dongdaemun in Seoul”, *Fashion Theory*, 15(3), 341-366.
-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London: Routledge.
- Steele, V. (2019), *Paris, Capital of Fashion*, London: Bloomsbury Visual Arts.
- 연합뉴스 (2025.10.16.), “한복은 K-컬처 대표 자산”...21~26일 ‘한복문화주간’,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023000005>
- Maison des Canut, n.d., <https://maisondescanuts.fr/>
- Science and Industry Museum, n.d. <https://www.scienceandindustrymuseum.org.uk/whats-on>
- Soierie Vivante, n.d., <https://www.soierie-vivante.asso.fr/>

❖ ABSTRACT

The Construction of Fashion Culture  
and Urban Narratives  
: A Semiotic Comparative Analysis of Textile  
Museum Exhibitions in Lyon and Manchester

Jeon, Hyeong-Yeon  
Mokpo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offers a comparative, semiotic analysis of how textile culture is reconstructed within the urban cultural meaning and identity of Lyon, France, and Manchester, UK, through museum exhibitions. Rather than viewing exhibitions merely as representations of industrial history, this research understands them as meaning-generating dispositifs that organize a city's historical memory and cultural significance. The analysis focuses on the actantial structures, narrative organization, and spatial configurations through which textile heritage is signified. The findings reveal that despite their shared textile-industrial histories, both cities construct markedly different systems of meaning. In Lyon, textile culture is presented as a cultural heritage embodying artisanal tradition and urban identity, primarily through the figure of the Canut weaver, weaving techniques, and workshop-dwelling spaces. Notably, the Soierie Vivante exhibition configures textiles as a heritage that is performed and transmitted through operating looms, participatory programs, and movement between dispersed workshops.

Conversely, Manchester narrates textiles through the lens of workers, machines, cotton, and global trade networks, portraying them as the

driving forc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 growth. Simultaneously, the city reinterprets this heritage critically, acknowledging its entanglement with colonialism and labor exploitation. While Lyon emphasizes lived spaces, Manchester interprets textiles through reconstructed exhibition spaces that represent industrial systems. This study argues that the meaning of textile heritage is shaped not solely by historical content, but structurally through the arrangement of actors, narratives, spatial forms, material conditions, and agents of transmission. It further demonstrates that the same industrial heritage can be remembered and represented differently, reflecting each city's unique historical experience and cultural value system.

Keywords: textile museums, urban identity, semiotics, exhibition analysis,  
Lyon, Manchester, industrial heritage, living heritage

■ 논문투고일 : 2026. 05. 04

■ 심사완료일 : 2026. 06. 05

■ 게재확정일 : 2026. 06. 05

